

리어카로 시작, 체인점 18개로 늘린 '영암마트'의 기적

더 싸고... 더 싱싱하게... 골리앗 이겨낸 토종슈퍼

대형 유통업체의 시장 잠식으로 소형 유통점의 무덤으로 불리는 광주에 골리앗을 이긴 토종 슈퍼마켓이 있어 화제다. '리어카 장사'로 출발해 17년 만에 18개 점포를 거느린 슈퍼체인으로 성장해 경쟁력은 점포의 크기에 비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기업형 슈퍼에 맞서 토종의 힘을 보여준 주인공은 '영암마트' 대표 김성진(42)씨. 그는 스물넷 총각이던 1992년 '야채 리어카'로 유통업에 발을 디뎠다. 광주 시내 골목골목을 누비며 열심히 돈을 모은 김대표는 1년 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26.4㎡(8평) 짜리 '영암 농산물야채직매장'을 낸다.

그는 특유의 성실성과 친절함을 바탕으로 '아줌마' 손님들의 살가운 동생이 된다. 야채 행사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동원해 주부들의 원하는 물건을 제때 싸값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가 14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마트 본점 매장에서 진열된 야채의 신선도를 살피고 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유유 1통도 배달 친절·성실 입소문

단골 3만여명...골목 상권 스타로

수익금 10~20% 지역사회 환원도

에 공급하며 골목 상권의 스타로 떠오른 것이다. 그의 가게는 '총각네 과일가게'로 불리며 승승장구해 5년 만에 528.9㎡(160평)로 매장을 넓혀 영암마트로 새 출발했고, 최근에는 10~50평 규모의 체인점만 18개에 이르는 향토 슈퍼체인으로 성장했다.

영암마트의 가장 큰 성공비결은 싸 가격에 싱싱한 야채와 과일을 공급한 데 있다. 산지구매와 도매를 통해 직접 공수한 신선한 물품을 대형마트는 물론 주변 슈퍼보다도 10%가량 싸게 공급한 것이 주효했다.

골목 슈퍼지만 무료배달, 포인트 적립, 사은행사 등 대형마트의 고객관리 제도를 적극 수용한 것도 도움이 됐다. 또 고객이 주문을 할 경우 과일 1개라도 배달하고, 365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7시에 문을 열고 새벽 1시에 문을 닫는 등 동네 슈퍼의 부지런함을 장점으로 살렸다.

여기에 친절함까지 더해지면서 까다로운 주부들까지 사로잡아 영암마트 본점에서 관리하는 단골고객만 6천200명에 이른다. 체인점 18곳에서 관리하는 단골 고객까지 포함하면 단골 손님만 3만명에 달한다.

6년째 단골이라는 주부 박남례(50)씨는 "무엇보다 과일이나 야채가 싱싱하고 단골들도 잘 챙긴다"며 "대형마트보다 더 친절하게 멀리 갈 필요 있겠느냐"

고 말했다.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인근에 경쟁업체가 문을 열 때마다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 직원들이 나서 물품 매입부터 점포관리, 서비스를 다시 체크해 고객들의 마음을 붙잡았다.

수익금의 10~20%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담양 온누리 재활원을 비롯한 지역 복지시설 30곳에 후원을 하는 것도 영암마트가 경쟁업체와 차별화를 둘 수 있었던 부분이다.

김 대표는 "대기업 계열 편의점들이 골목상권까지 장악하고 있지만 소규모 점포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는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며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을 많이 해 지역 중소형 마트의 '롤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반짝 갠 하늘 바쁜 농심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인 15일 낮 나주시 동수동의 한 논에서 농민이 농약을 살포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6일 광주·전남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30~7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위직림기자 jrwi@kwangju.co.kr

내달 중순 대폭 개각

세계 김치연구소
광주에 들어선다

이대통령, 천성관 내정 철회...정동기 민정수석 사의

이명박 대통령이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을 공식철회하고, 정동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 후보자 인선 파문 책임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대폭적인 개각이 예고됐다. <관련기사 3·4면> 이 대통령은 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의 내정을 공식 철회했다.

검찰총장 후보를 사퇴한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잘못을 저지

르고 거짓말한 사람을 조사하는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검찰 최고책임자가 국회정문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받아들이 수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내정을 철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행보를 해왔는데 핵심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다. 고위공직자가 모든 면에서 모범 보여야 하고 그런 면에서 가까이 본인 재산도 다 내놓

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이날 회의에서 정동기 민정수석은 '검찰총장 후보자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은 참으로 송구스럽다. 소관 수석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이날 말뚝 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에 이어 8월 중순 이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번 전 후보자 파문을 계기로 개각 인선기준에 도덕성의 비중을 크게 높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치에 대한 연구·개발을 전담할 세계김치연구소가 광주에 들어선다.

<관련기사 5면>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전국화·세계화를 서두르고 있는 광주김치문화축제를 비롯, 김치종합센터 건립 등 기존사업과 연계시켜 '김치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후보지 공모에서 광주가 전북 완주군, 충남 괴산군, 경남 거창군 등을 제치고 김치 관련 R&D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 김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해 건립되는 세계김치연구소 유치에 성공했다.

세계김치연구소는 오는 2010년 착공해 2011년까지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완공될 예정으로, 매년 100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기아차·금호타이어 등 파업·태업

수백억원대 생산 차질

기아차와 금호타이어 등 광주지역 대기업 노조의 파업 및 태업으로 수백억원의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부분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잔업도 거부해 쏘울과 카렌스, 봉고 트럭 생산라인 등이 모두 멈춰섰다. 노조는 16일에도 6

시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

노조는 그동안 임금 협상에서 ▲기분급 8만7천709원(5.5%) 인상 ▲주간 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기분급 동결 ▲주간 연속 2교대제 내년 9월 도입 등으로 맞서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노

조의 부분파업으로 이미 55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했고 15~16일 부분 파업으로 발생할 손실액도 388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17일 예정된 특근마저 거부할 경우 125억원의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 총 568억원의 매출손실액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조도 지난 2일부터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생산량을 30% 줄인 데 이어, 이날부터 50% 줄이는 태업에 돌입했다. 예상 매출 손실은 170억원 규모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신양파크호텔
여름 해당 패키지
예약실 ☎: 228-4711-2
대표전화 ☎: 228-8009

에스디엘주식회사와 함께 하는
워킹태교 태교 음악회
남구 통합문화예술회관(봉선동)
2009. 07. 22 (수)
11시 ~ 13시 / 14시 ~ 16시 / 17시 ~ 19시

1. 태교 음악회 소개: 태교 음악회는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주며, 임부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에스디엘주식회사와 함께 하는 워킹태교 태교 음악회로, 임부들이 태교를 즐기며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공연 프로그램:
- 태교 음악회: 임부들이 태교를 즐기며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태교 음악회: 임부들이 태교를 즐기며 건강한 태아를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후원 기관:
- 에스디엘주식회사
- 남구 통합문화예술회관(봉선동)

4. 후원자 소개:
- 김성진: 영암마트 대표
- 박남례: 영암마트 대표
- 김지을: 기자